

한 미국의 프레이터니티(fraternity)제도는 수업을 듣는 학과생활과, 수업이 끝난 뒤의 학과의 생활을 모두 대학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대학생은 대학의 건물 안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숙한다. 대학생의 주거생활도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행동은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관학교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고, 지극히 극소수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일부 대학의 고등고시 준비 생활관에서 그 비슷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다. 대학생의 주거 형편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수용능력을 가진 기숙사는 교육적인 목적의 주거환경이기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적인 목적의 것이다. 학과의 교육활동이 기숙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의 기숙사는 대학이 운영하는 하숙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대학생의 주거 형편을 짐작하는 데는 서울대학교의 경우가 참조가 된다. 1982년에 체계적으로 조사된¹⁾ 바에 따르면 관악캠퍼스의 경우에 주거 형편은 총학생수 가운데서 본가 54.0%, 친척·친지집에 기숙 12.8%, 하숙 11.7%, 자취 11.2%, 기숙사와 기타 11.0%의 순서이다.

나아가서 하숙과 자취를 하는 지방 학생의 실태를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의 하숙 및 자취 가운데 하숙 45.4%, 자취 41.4%, 전세방 매식 4.3%, 독서실 매식 4.6%, 기타 4.3%로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방 출신 학생들의 주거 실태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더 나열하면 이렇다. 5명 이상의 하숙생을 치다꺼리하는 하숙집이 전체 하숙집 가운데서 절반 이상인 53.2%이다. 하숙생이 많은 경우는 35명에서 60명이나 되는 하숙집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하숙이 기업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하숙생과 자취생이 주거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

항은 하숙비 또는 자취 비용 33.5%, 주위 환경 26.1%, 하숙 또는 자취집의 서어비스 14.3%, 교통 편의 13.7%의 순서로 나타난다. 현재의 주거 형편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는 하숙생의 경우에는 전화 사용의 편의, 소음 같은 생활 환경, 식사의 질이며, 자취생의 소망 사항은 취사의 불편이 없는 부엌 사용의 편의이다.

새로 생긴 수도권외의 지방분교는 기존의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대학생들은 거개가 현지 학생이 아닌 객지 학생이다.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까운 곳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서 60km 떨어진 중앙대학교 안성 분교의 경우에 기숙사에 수용된 학생은 18%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인접 도시에 서 그리고 원거리인 서울 같은 데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각각 7.9%, 74.1%로 대부분을 이룬다. 그래서 외딴 곳에 세워진 대학의 신설 캠퍼스는 대학생의 주거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해 있다.

3. 大學村의 실태

대학의 캠퍼스에 이웃한 곳에 대학인들의 생활 또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단의 지역을 일컫는 대학촌은 그 개념이 우리의 경우에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지방자치의 오랜 시행으로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에 하나의 자치구(옥스포드의 경우)가 되어 있거나, 캠퍼스 주변에 대학생들과 적절된 활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지방 소도시(미국의 버클리대학이 있는 버클리시)로 형성된 곳에서는 대학촌의 개념이 명백하다.

그러나 대학촌을 위한 대학 당국의 집중적인 노력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대학촌은 여러 시각에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촌의 현실적 파악은 하숙집 같은 주거 시설을 포함해서 대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서어비스 활동이 밀집된 장소를 일컫는다.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 파악된 대학촌은 대학의 정문으로부터 200~350m 안에 학생 편의시설이, 그

1) 趙舜哲, 裴俊鉉, “大學生의 住居環境 實態에 關한 調査研究—서울大學校 下宿·自炊生을 中心으로—”, 環境論叢, 제11권(1982), pp. 83~105.

리고 500~750m에 하숙촌이 밀집되어 있다.²⁾ 학생 편익시설에는 다방이나 주점 또는 유흥업소, 분식집이나 중국음식점 같은 음식업소, 당구, 탁구 등의 실내운동을 위한 여가업소, 문방구, 서점 등의 구매시설, 연극, 영화 같은 것을 공연하는 문화시설 그리고 학원 같은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촌의 개념은 대학이 바람직한 활동의 파급원으로, 또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파급원으로 파악되면서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하나는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의 주변지역이라 파악되는 개념인데, 요즘은 대학이 밀집된 서울의 신촌 일대에 소극장운동 같은 문화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음에서 대학촌의 개념이 확인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화여대 앞에 즐비한 양장점, 양품점도 여대생의 사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대생의 젊음이 확산되는 이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업소들이라는 어느 소설가의 지적은 그럴싸한 말로 여겨진다.

부정적으로 파악되는 대학촌은 학원사태와 관련된 개념이다. 학생들에 의한 도시 소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일단의 지역이라는 뜻이다.

4. 대학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外國의 事例

대학생을 위한 주거 수준이 이상적으로 해결된 고전적인 보기는 영국의 學寮(college)이다. 가운데 뜰을 두고 사각형으로 지어진 모습의 건물이 전형적인 영국의 학료는 학과활동과 침식을 포함한 학과외활동이 모두 이루어진다. 이런 제도는 대학이 학생의 父兄 역할을 맡아야만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긴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의 대학제도는 미국 대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학료제도를 도입한 초기의 미국 대학은 '부형의 역할'을 아울러 맡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차츰 엘리트교육 대신에 대중교육의 성격을 더해 갔다 따라 대학

생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대학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유형은 영국의 학료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학 자체의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둘째 유형은 거개의 학생들을 대학의 주거시설에 수용하되 대학이 대학생의 학과외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숙식을 제공할 뿐인 경우, 셋째 유형은 한정된 수의 대학생만을 수용하고 학과외활동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인 넷째 유형은 학생의 주거시설을 대학이 전혀 갖지 않는 경우이다.

대학생의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대학인 경우에 확보하는 주거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규모 기숙사(또는 기숙사 단지)이다. 자체의 식당과 여가시설 및 도서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시설의 운영은 관계자들에 의해 자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는 소규모의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영국의 학료를 모방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는 프테터니티(fraternity, 남학생용), 소로리티(sorority, 여학생용)가 있고, 입주해 있는 대학생의 자치운영에 의존하는 코업(coop 또는 cooperative)이 있다. 이런 주거에서는 학생들간의 강한 유대가 생겨나는 것이 특징이다. 건물의 소유주는 동창회일 때가 많다. 수용규모는 25~50명이 보통이다. 셋째의 종류는 아파트인데 결혼한 학생을 위한 것이다. 결혼한 학생을 위한 아파트의 확보는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서 비롯되었다.

5. 대학생 주거환경의 改善 : 그 전망과 可能性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환경은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틀데넌 동경대학의 경우에 1만 4천 명의 학생 가운데 기숙사의 수용능력은 겨우 12%인 1천 7백 명을 수용할 뿐이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능력은 전체 학생수의 11%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대학생의 주거환경은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대학 당국의 집

2) 김두하, 大學生 生活패턴 분석을 통한 大學村建設計劃의 方向設定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중적이거나 중요한 정책사항은 아닌 것이다.

우리 형편의 개선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다른 나라의 일반적 추세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이 추세에는 세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대학교육의 기회, 내용, 의의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아탑이기로다는 대학의 역할이 사회변화의 役軍으로서 중요시됨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편익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둘째, 나라마다 국민들의 주거수준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대학생의 주거 형편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대학이 '부형의 역할'을 맡던 시절이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소임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기숙사, 소규모 학생용 주택의 확보를 위해 직접 투자하거나 그런 사업에 지원을 늘리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해당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낙관론을 배제하는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는 대학생수의 양적 비대에 견주어 도서관, 실험실 같은 대학교육의 직접 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대학교육의 간접시설이라 할 기숙사시설의 확충은 투자 우선순위가 지극히 낮다. 둘째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대학생의 '정치적 위치'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낙관론만을 펼 수 없는 형편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수도권에 산재한 서울소재 지방분교의 대학생 주거 사정이다. 기존의 시가지에 멀리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숙촌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없고 대학 당국도 기숙사 시설의 확충에 재정의 여유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주변에 하숙촌, 자취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무정책의 정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대로 하숙, 자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분교의 대학 당국이 임대주택의 공급에 힘쓰거나 관심을 보

여 은 정부 기업(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 건설업체와 제휴하는 방법이다. 아직 시도된 바는 없지만, 공단 주변에 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면, 같은 논리에서 대학생용 임대주택 단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보편성이 있는 묘책은 아니지만, 특수 목적의 고등교육기관 설치가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직하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은 교육의 효율을 위해 기숙사를 완비하고 있는 것이다.

6. 대학촌 形成의 전망

대학이 형성된 지 오래거나, 대학이 존재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체제인 경우에 대학촌은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대학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캠퍼스가 조성된 지 오래지 않은 대학에는 아직 대학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같이 새 캠퍼스가 조성되었거나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분교가 기존의 시가지에 멀리 떨어진 곳에 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 아직 이렇다할 대학촌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촌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는 대학촌의 자연발생적 형성을 허용치 않는 도시계획 때문이다. 대학이 자리한 교육지구, 그리고 교육지구의 교육환경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대학 주변의 녹지 또는 공원의 지정은 대학촌의 자연스런 형성을 막고 있다. 이런 규제는 필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될 경우에 예상되는 불량한 교육환경을 예방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거꾸로 대학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대학촌의 적극적인 형성에는 도시계획행위가 힘이나 영향이 되지 못한다. 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행위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지구제(zoning)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위의 발생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 장치이지만 어느 행위의 발생을 유도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제약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촌을 갖지 못한 곳에 대학촌을 정

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값진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곧,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라가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공업단지를 만들어 본 경험을 기억한다면 대학촌 또는 대학단지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다.

대학촌 또는 대학단지의 개발 가능성은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착안하는 정책의 시점이 먼저 켜져야 한다.

첫째, 대학촌은 대학의 자체 교육시설의 연장 또는 보완이 된다는 사실이다. 학교 앞에 학생들이 즐겨 모이는 다방이 학교 밖의 강의실이라고 별칭이 붙는 사례가 대학촌이 지닌 교육적 역할을 대변해 준다.

둘째, 대학촌의 형성은 대학촌이 자리한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한 지역의 번영을 위해 이름 있는 기업의 유치 또는 입지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지대하다. 거기다가 대학은 대부분의 제조업체 기업과는 달리 공해가 없는 산업이다.

대학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비경제적 효과도 절대적이다. 어느 지역에 이름난 대학을 확보하고 있음은 그 지역의 이미지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위선에 큰 도움이 된다. 지방도시가 이전하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대도시 안에서 새로 생기는 대학병원의 입지에 사회적 관심이 생기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사회발전 또는 지역발전에서 차지하는 대학촌의 중요성은 대학이 맡고 있는 역할이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높아질 것이다. 산학협동의 시대에도 대학의 위치가 막중했지만 다가올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학이 대표적인 정보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곧 기술도시의 조성이 유행처럼 되어 있다. 기술도시의 조성에는 대학이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다.

기술도시는 대덕단지나 일본의 쓰쿠바대학촌, 미국의 트라이앵글지대(노스 캐롤라이나의 채플 힐 일대)같이 거대한 규모를 흔히 연상한다. 그

러나 한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촌도 소규모의 테크노폴리스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안의 지방분교 주변은 자체 연구소 또는 연수원을 짓고자 하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적 매력을 가진다.

그래서 대학과 관련된 기업활동이 서로 복합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작은 규모의 테크노폴리스가 많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한 개의 대학이 이룬 대학촌이 그 영향을 파급하면서 이루어진 첨단과학도시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대학 주변에 이른바 '실리콘 계곡'이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유전공학 관계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대학촌이 지닌 이런 교육적, 지역발전적, 그리고 국가발전적 역할을 인식한다면 대학촌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현행 법적 장치의 제약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구제의 엄격한 지정이 대학의 신설 캠퍼스 주변을 일종의 불모지로 만들고 있지만, 이는 도시계획 당국과 대학 당국 그리고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구의 협조로 그런 제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올림픽촌을 형성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미관을 행정지도로 개선하고자 시도할 때와 같이 도시설계의 방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정부 당국이 경영개발을 통해 대학촌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는 말

대학생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은 '관심 있는 외면(benign neglect)'이었다. 관심이 더러 기숙사의 증축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거나, 관심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주거환경 문제는 부분적인 해결책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기숙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면서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대학촌의 개발은 도시계획 당국의啓明되고 적극적인 시각만 정립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이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